

財閥 과 農民



金 成 勳
(중앙대 산업대 교수)

연초 전두환 대통령은 농민의 소득증대가 생산행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민(단체)들로 하여금 가공산업에 적극 참여케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수입자유화와 상업농화(商業農化)의 두 장벽 앞에서 뚫고 나갈 길을 찾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농민에게 현재와 장래의 확실한 진로를 적절하게 제시해 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 조치였다.

그런데 현재 우리 농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수입자유화에 따라 외국에서 농축수산물과 원료를 마구 수입하거나, 또는 이를 들여와 가공판매하는 주체가 농민 또는 농민단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재벌 또는 독과점적 도사본이라는 사실이다.

수입, 저장, 가공으로 부터 생기는 어마어마한 이익금이 고스란히 가공업자들에게 귀속되는 반면, 생산농민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며 다른한편 여전히 비싼값에 사먹는 소비자는 장님 닭보기가 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앞으로의 농촌·농업장래를 전망해 볼 때 수입자유화에 대한 대비조치가 사실상 막연하며 범상한 사태가 아닌 것 같다. 이로인해 벌써부터 농산물수입에 허겁지겁 달려드는 재벌에 대한 규탄의 소리가 농민, 학생 층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격폭락으로 망친 마늘, 양파를 재배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극렬한 항의를 집단화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保守性이 가장 강한 농민계층이 이토록 급진화 과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걱정스런 사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즈음 어느 농민단체들의 모임을 가보아도 공통된 화제는 그동안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L재벌의 「치즈」합작공장 이야기와 수입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자 마자 재빨리 선수를 친 H재벌의 D國돼지고기 통조림 수입등 농산물수입자

치이즈 합작 공장설립과 쇠고기 수입은 앞으로 우리나라 낙농축산업의 생사의 기로에 서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

유화에 편승하고있는 재벌들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 뿐이다. 관련 농민들에게는 현재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는 민주화 「잇슈」보다도 이 문제가 더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축산농민 대표들은 한결같이 이 문제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 낙농축산업이 살아 남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목청 높여 주장한다.

L재벌이 세계 제1의 낙농국의 B회사와 맺어 놓은 합작「프로젝트」의 가계약 내용을 탐문해 볼 때, 농민들이 흥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짐작케 된다. 완제품「치즈」제조에 필요한 전체 원료 소요량의 대부분을 합작선인 N국에서 1차 가공된 「치즈」덩이로 들여와 뉴질랜드 대사관계 문의한 결과 1차년도에는 70 : 30으로라도 치이즈의 소비량에 따라 60 : 40 그리고 50 : 50의 비율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라 한다. 국산원료와 섞은(2차가공한)다음, 국내시장에 전량 판매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N국 합작회사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확실한 이윤(당초 서울조합에 연평균 15%를 요구했음)수준을 보장할 것을 D회사가 고집하였다.

合作사업이란것이 自由업종이기 때문에 농수산 당국과는 행정적으로 거라 먼 문제이지만 알려진 바로는 담당局課에선 L그룹에게 원료 사용 比率을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들린다. 실제50%로 낮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앞

유제품 수입상사는 낙농가의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이익에만 급급, 서로가 수입하려고 아우성

으로 계속 감시하고 규제할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져 유제품(乳製品)의 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요즘, 값싼 원료를 1차가 공해 들여와 약간의 손질만 한 다음, 막강한 판촉망을 중원, 국내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것은 비록 국산원료의 부분적인 사용을 전제한다하더라도 서두에서 인용한 대통령의 가르침과는 아직 거리가 먼 조치이다. 생산자 단체들의 참여가 빠지고 더우거나 현재 농민단체들이 가공, 시판하고 있는 기존 「치즈」시장을 잠식, 마침내는 가격면에서 일단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L재벌의 입장에서 서야 돈 벌기가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볼 수도 있다. 혹시 경영이 잘못되더라도 일정비율의 이윤보장에 따른 경비지출은 손비항목(損費項目)으로 처리 될 것이므로 국내 합작회사로서야 크게 손해볼 것이 없음은 물론이다.

이 합작사업건은 당초 N國과의 수출초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일찌기 상공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N國으로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것이다. 그래서 처음엔 생산농민단체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이 N국의 B회사와 지난 3년간 끈기있게 합작상담을 진행해 오다가 동회사가 고집하는 80% N國원료사용및 15% 이윤보장의 두 조건과 合作比率 51(D회사)에 49(서협)문제가 우리나라 낙농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와 나아가서 소비자를 위해서도 불평등계약이라고 판단해 결렬된 것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L재벌이 이거 웬 떡이냐고 대뜸 물고 나선 것이다. 그러니까 M유업(株)도 J기업도 뒤지지 을세라, 미국등 유명 치즈회사와 지금 합작상담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유생산(낙농업)은 그동안의 꾸준한 기술향상과 정책지원으로 최근 3년간 계속 과잉되어 남아도는 우유를 농민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초급학교 급식활동에 부조(扶助)하고 있다. 그리고도 남아돌아 울며 겨자먹기로 송아지에게 다시 먹이거나 분유를 만들어 기백억원어치에 이르는 재고(약7천톤)를 쌓아 놓고 있다. 그 재고의 상당분이 금년말이면 시효를 넘기게 돼 가축사료로 쓰여지지 않는 한 아예 쓰레기로 버려야 할 처지이다.

십지어는 생산농민에게 우유대금을 지불할 수 없어 재고 분유로 대신 지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분유가 제대로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은 국내시장에 외국산분유가 판을치고(4분의3정도)우리나라 제과업체들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를 만들며 선진국들과는 달리 분유를 아주 적게 사용하는 대신 값싼 우유 저질물(유당, 카제인등)을 수입해다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른 두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 낙농축산업의 사활이 걸린 L「그룹」의 물윤리적(沒倫理的) 합작「프로젝트」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사적으로 저지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잉생산되는 우유문제에 대한 자구책(自球策)으로 농민들 스스로가 자진하여 저능력(低能力)젖소를 도태(도살)시켜 사육두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L재벌 입장에서야 현재 우리나라 낙농생산농민이 죽을 썬거나 말거나, 나아가서 「치이즈」 원료도입으로 장차 국내 낙농업이 쓰러지거나 말거나 상관할 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때 L재벌은 국내 양돈업이 고초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기업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햄」, 「소시지」 원료인 돼지고기를 직수입하자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유인즉, 경쟁상대인 S재벌은 농민과 고유분야인 양돈업에까지 직접 뛰어들어 돼지를 수만마리 기르면서 자체적으로 도축하여 가공하는데 L기업은 농민들로부터 사들이자니

현재의 우유생산은 기술향상,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우유를 증산했으나 우유의 과잉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급식 활동을 펴고 그러고도 남아 다시 송아지에게 먹이는 등 안간힘을 써

물론 우리나라 우유의 생산단가는 꽤 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1의 천해낙농국 N국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도, 캐나다도, 일본 그리고 EC국들도 그렇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N국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자기나라 낙농업에 쏟고 있어 그 보조액이 생산비의 20~30%나 된다.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이론에 충실한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낙농 생산 및 가공에 대해 이와 같은 보조를 할 것이라곤 어느 농민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국의 축산농민들은 지난달 각각 다

비용과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금년 7월1일 부터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전격적으로 H재벌은 세계적인 「브랜드」인 D국 T회사 제품 통조림의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다. 20여개사의 탄 회사들도 다투어 덩벼들고 있다.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바람에 문자 그대로 惡德재벌들만 살판이 났다. 많은 다른 재벌들은 농수축물의 수입자유화 조치를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H재벌총수인 J씨같은 이는 지난 7월 4일 전주에서 개최된 국제경제학회에서 공산물의 수입 개방을 허용하는 농산물의 개방을 단연 반대한

EC 각국은 농민, 농촌, 농업보호를 위해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까지 농수축산물 수입을 억제하고, 수입할 경우 관세에 다시 수입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

다고 주장한다.

금년초에 한미통상회의차 우리나라에 들렀던 미국 관리 한사람과 만나, 나눈 이야기는 사뭇 교훈적이다. 왜 감자(냉동)마저 수입하라고 하는가. 우리나라 江原道 농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전 농가의 生計를 걸고 고생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나마 국내 수요도 별로 안되어 해마다 생산량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니 그 미국 관리의 대답인즉, “그것 참 이상하다. 네 나라 某食品 재벌의 호소에 따르면 국내시장은 얼마라도 가공, 판매할 수 있는데 정부의 수입 제한 조치 때문에 못들어 온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멀잖아 아직 감시중목인 냉동감자도 수입자유화가되지 않을까 모두들 걱정이다.

이상에서 보듯 우리 재벌들은 원료형태건, 반제품 또는 완제품이건 불문하고, 이익이 남는 것이면 국내 농민, 농업이야 어떻게 되든 그것도 되도록이면 독점수입하려고 든다.

우리나라 수출이 늘면 늘수록 수입도 그만큼 해주어야 하는데 불똥은 애꿎은 농축수산물에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수입된 농축수산물 및 가공제품의 국내가격과의 차익은 거의 대부분 재벌 또는 독점자본에 귀속되고 있다.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식품값을 지불하며, 다른 한편, 국내농업은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계속 박탈 당한 채 생산 기반은 소리없이 무너져 간다.

이글은 지난 7월 6일 비슷한 논지로 某경제지에 썼더니 L재벌은 물론 主務당국인 농림수산부 해당과조차 친절하게 統計수치가 틀리고 내용이 不正確하다고 알려주어 고쳐쓴 것이다. 통

계수치가 좀 틀리기로소니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의 흐름이 더 중요한데도 언제부터 우리나라 풍토가 양철위의 콩튀기듯 즉물적(即物的)이 되었는데 오히려 안스러울 뿐이다. 그러면 누가 농민, 농촌, 농업을 위해 正論을 펴야 한다는 말인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떠한가. 일찍부터 EC 각국은 자국들의 농민, 농촌, 농업 보호를 위해 미국과 일촉즉발 무역전쟁을 하면서까지 농수축산물 수입을 억제하고 수입할 경우 그에 따른 관세와 거기에 다시 수입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또한 관세와 과징금, 그리고, 가능하면 생산자 지향의 단체로 하여금 수입하게 하여 국내가격과의 차액까지 한데 모아 자국농업의 생산성향상과 농산물수출에 재투자한다.

그결과 오늘날 EC각국과 심지어 만성적인 수입국이었던 영국마저도 국제시장에서 미국농산물 보다 국제경쟁력이 높아졌을 정도이다. 소맥(밀)이 그렇고, 각종 축산물이 그렇다. 일

수입개방의 압력에 대해 거센 파도



“

한국의 재벌은 원료형태건 반제품
· 완제품 등 이익이 남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독점수입 하려는 경향이
있어 ”

본도 비슷하다. 정규 정부예산으로 자국(自國) 농업부분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 붓는 외에도 수입농산물의 이익금을 취약품목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 투자한다. 밀 하나를 예로 들더라도 한 때 자급률이 2~3% 였던 것이 지금은 18%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농수산물 수입액은 지난 6년동안 12조원에 달했는데 그에 따른 관세와 국내가격과의 차액은 어디로 갔는가. 최초 농수산부가 수입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려 조치를 취하는데 타부처 및 업계로부터 소비가 크다고 들린다. 현재까지 밀은 제분협회가 독점 수입한다. 콩은 3개의 독과점 대두(大豆)가 공업체가 애초부터 마음대로 수입, 재미를 구가하고 있다.

소량의 콩나물 콩과 두부용만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할 뿐이다. 몇해전 농촌진흥청 산하의 맥류(麥類)연구소에서 한국 품도에 맞는 미국산에 뒤떨어지지 않는 양질(良質)의 밀 품종을 개발한 바 있었다. 그리하여 이를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정부 당국에 종자확보 용만이라도 수매해 주자는 안을 냈던 모 지방 책임자는 당시 세도가 찌를 듯하면 농수산장관으로부터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는 건의라고 꾸중만 호되게 들었다는 것이다. 사료용 곡물의 수입 역시 사료업계와 축협이 직접 관장한다. 그런데 정부는 외화를 절약하기 위해 배합사료를 만들 때 곡물사용량을 60% 이상 섞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증가되는 축산물 소비에 따라 양축농민들로부터 늘어나는 사료수요를 거절할 수는

없고 그 대안으로서 사료업체들은 알곡 대신 소맥껍질을 알곡보다 훨씬 더 비싼 값으로 다투어 수입하여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한해만도 기백억원을 외국에 더 지불했다는 학술보고가 나왔다.

물론 이 때 추가 발생한 비용은 우리나라 양축 농가에 전가되었다. 배합사료곡물의 품질은 그만큼 떨어졌는 데도 말이다.

경직적인 정부조치로 국가도, 사료업자동민도 모두 손해를 보는데도 이 조치는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아물든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의 밀(소맥)자급율은 1% 정도 될까 말까이며, 옥수수 등 조곡(粗穀)은 2~3% 콩도 18%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식량자급율은 79년 58%에서 86년에는 44.5%로 7년 사이에 무려 13.5%나 뚝 떨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서기 2000년 대망의 선진국 대열에 끼어 들 때쯤엔 식량자급율이 30%도 되지 않을 전망이다. 선진국 치고는 유일하게 대단히 모양이 불안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웃 일본하고는 달라 세계에 유례가 드물게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불안하다.

그런데도 일부 재벌들은 다투어 불균형, 불평 등 현상을 재촉하고 있다. 그 사례의 하나가 L재벌의 「치즈」합작사업이며, H재벌의 돼지고기 통조림 독점 수입이다. 이미 농민단체나 국내업계가 전량 국산원료(우유 및 돼지고기)를 이용하여 「치즈」등 가공식품을 생산해 내고 있고, 지금 우유가 썩어 돌며, 돼지고기 값이 마구 떨어지고 있는데도 외국자본에 특혜조건까지 보장해 주면서 자기네만 돈벌이 하겠다는 것인가.